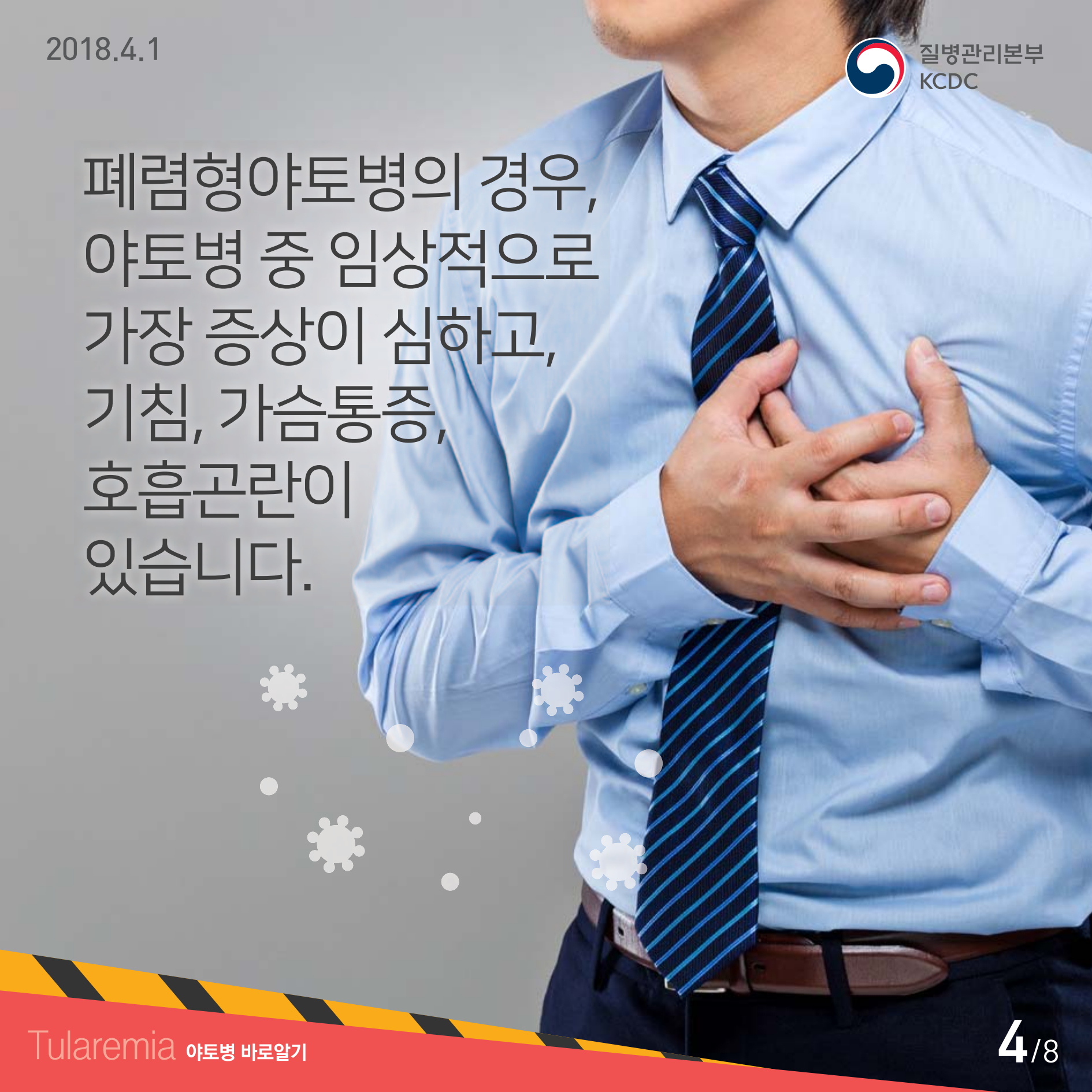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
KCDC

야토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야토균에 감염된 진드기
또는 등에에 물리거나

감염된 토끼류와 설치류,
사체를 접촉한 후에
걸리는 병입니다.

외국의 경우, 자연 발생 야토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토균을 생물테러에 악용할 경우, 흡입을 통한 폐렴형야토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폐렴형야토병의 경우, 야토병 중 임상적으로 가장 증상이 심하고, 기침, 가슴통증,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사람 간에
전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적절한 처방과
조치를 받으면
완쾌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

야토병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병관리본부
KCDC

관할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연락바랍니다.

1339